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개요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WTC)는 글로벌 트레일 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국제적인 대표의 장으로서 2010년에 발족되었습니다.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전세계의 트레일에 관한 새로운 경향 및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양질의 트레일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발, 유지하기 위한 협력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TC는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이익을 주면서 자연 보호를 촉진하고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트레일 관광 및 트레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에서는 전세계의 다양한 트레일이 소개되며, 트레일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트레일을 통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드트레일즈컨퍼런스개최연혁

대회명	일정	장소
제6회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돗토리 대회	2016년 10월 14~17일	일본 돗토리현
제 5회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2015년 1월 15~17일	한국 제주도
제 4회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2014년 1월 15~17일	한국 제주도
제 3회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2012년 10월 29~31일	한국 제주도
제 2회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2011년 11월 7~9일	한국 제주도
제 1회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2010년 11월 7~9일	한국 제주도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개요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전세계의 다양성이 풍부한 트레일을 연결하여 멋진 트레일 경험을 생성, 개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트레일 단체, 트레일 이용자 및 기타 아웃도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세계 트레일의 향상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주요 사업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은 사람과 자연 야외 문화 유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트레일 단체 간의 국제 협력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은 다음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개발, 모범 경영 사례(최상의 관리 관행) 및 트레일에 관한 연구 결과의 공유.
- 양질의 체험을 위한 노력, 지역과의 연대, 정확한 정보, 크로스 마케팅(고객 상호 소개) 기회의 증진.
- 트레일에 관한 가치관의 공유, 아웃도어 및 자연 속에서의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증진.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위원회 멤버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위원회 멤버는 모두 자원봉사자이며, 한 달에 한 번 인터넷 전화 회의를 통해 5가지 중요 과제를 추진시키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대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위원회 구성원 (2012. 10 ~ 2014. 01)

대표	갈레오 세인츠(림 오브 아프리카)
지식자원공유 분과	로버트 선즈(아메리칸 트레일즈 협회) 로라벨레빌(애팔래치안 트레일 보존협회) 정휘(한국걷는길연합)
마케팅/프로모션	분과 이수진(사단법인 제주올레) 갈레오 세인츠(림 오브 아프리카) 재키 랜들(브루스 트레일 보전협회)
컨퍼런스/이벤트 분과	정지혜(사단법인 제주올레) 로버트선즈(아메리칸 트레일즈 협회) 재키랜들(브루스 트레일 보전협회) 리즈넬슨(유럽 도보여행자 협회)
전략/개발 분과	로라벨레빌(애팔래치안 트레일 보존협회) 정지혜(사단법인 제주올레) 갈레오세인츠(림 오브 아프리카)

●2대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위원회 구성원 (2014. 01 ~)

대표	갈레오 세인츠(림 오브 아프리카)
부대표	로라벨레빌(애팔래치안 트레일 보존협회)
총무	재키 랜들(브루스 트레일 보전협회)
지식자원공유	로버트 선즈(아메리칸 트레일즈 협회) 정휘(한국 걷는 길 연합) 컬스틴 스텐더(비블먼 트랙)
마케팅/프로모션 분과	갈레오 세인츠(림 오브 아프리카) 로버트 선즈(아메리칸 트레일즈 협회)
문화/생물다양성 분과	피보스 사라비오 포로스(그리스의 길) 후세인예류어트(터키 문화의 길 협회)
컨퍼런스/이벤트 분과	정지혜(사단법인 제주올레) 리즈넬슨(유럽 도보여행자 협회) 히로아키 키시다(NPO 법인 미라이)
전략/개발 분과	로라벨레빌(애팔래치안 트레일 보존협회) 갈레오 세인츠(림 오브 아프리카) 미르바바코(레바논 마운틴 트레일 협회)

URL : <http://worldtrailsnetwork.org/>

e-mail : info@worldtrailsnetwork.org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개요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아시아 지역 내 트레일 현안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트레일 산업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자연자원 보존, 트레일 조사 및 관련 지식자원 공유, 트레일을 통한 건강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더 나은 트레일 문화 정립, 공동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 내 주요 트레일 기관 및 단체, 워킹 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2014년 1월 제주에서 공식 발족한 글로벌 네트워크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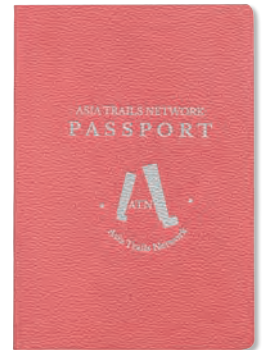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주요 사업

- 자연자원 보존 캠페인 및 활동
- 트레일 조사 및 관련 지식자원의 공유
- 트레일을 통한 건강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도보 여행 활성화 및 건강한 도보여행 문화 구축
- 공동 홍보 및 CO-마케팅
-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제회의 등 트레일 관련 이벤트 및 사업 추진

●공동추진사업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패스포트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패스포트는 아시아 국가의 트레일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위한 여행증명서이다.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Asia Trails Network) 소속 트레일 여행 길에 오른 여행자들은 이 패스포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각 트레일에서 확인 스탬프를 받게 된다. 패스포트 소지자는 아시아의 대표 도보여행 길을 걷는 여행자로서 인정되어 각 트레일에 방문 시 다양한 선물과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모든 트레일의 스탬프를 받은 후 완주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패스포트 관련 문의: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사무국

[중국] 마운틴 저니 차이나

【Tel】+86 (0)10-6836-8450 【e-mail】liuxmwd@sina.com

[일본] 돗토리 워킹리조트 홍보협의회(특정비영리활동법인 미라이)

【Tel】+81 (0)858-24-5725 【e-mail】civic@npo-mirai.net

[한국] 사단법인 제주올레

【Tel】+82 (0)64-762-2190 【e-mail】jejuolle@jejuolle.org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Asia Trails Conference)는 아시아의 트레일 단체와 전 세계 도보여행 마니아들이 만나 함께 걸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공연과 먹거리를 즐기고, 트레일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워킹 이벤트로,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Asia Trails Network) 주최로 2년에 한 번 장소를 바꿔가며 아시아 지역의 대표 걷기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 제1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일시/장소: 2014년 11월 / 대한민국 제주

연계행사: 2014 제주올레 걷기축제 (www.ollewalking.co.kr)

· 제2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일시/장소: 2015년 10월 / 일본 돗토리현

· 제3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일시/장소: 2017년 / (미정)

제6회 월드 트레일즈 컨퍼런스 돗토리 대회 참가 단체 목록

【아시아】

중국

국제 시민 스포츠 연맹 중국 본부/백로만 습지-징장 그린웨이
길림성 정부
마운틴 저니 차이나/중국 국가 등산로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 롱 트레일 협회
일반사단법인 전일본 노르딕워크 연맹/재팬 노르딕 워크 프리미어 리그
일반사단법인 일본 워킹 협회
규슈올레 인정 지역협의회, 규슈관광추진기구/규슈 올레
가고시마현 자연 보호과/아마미 세계자연유산 트레일(가명)(코스 선정 중)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미라이/워킹 리조트 돗토리
산인해안 지오파크 트레일 협의회/산인해안 지오파크 트레일
타나베시 쿠마노 관광 뷰로/쿠마노 코도
걷는 시코쿠 추진협의회/시코쿠 오펜로

네팔

사마르스-네팔 시장 개발 프로그램/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

한국

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올레
강원도청, 강원컨벤션뷰로
비영리단체 굽이길/굽이길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갈맷길
사단법인 제주올레/제주올레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내포문화숲길
사단법인 숲길/지리산 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비영리민간단체 여강길/여강길

러시아

‘제니세니’ 연해지방 워킹 리그/‘제니세니’ 워킹 리그
유한책임회사 포스탈 세조노프
유한책임회사 로즈 인투르
유한책임회사 블라드스포르트세르비스

대만

대만 천리 트레일 협회/대만 트레일

터키

터키 문화의 길 협회/터키 문화의 길(리시안 웨이)

【유럽】

덴마크

유럽 도보여행자 협회/유럽 장거리 트레일E1-E12

그리스

그리스의 길/키시라 하이킹

아일랜드

클레어 갯 사이드 트랙티드/루 아발라 팜 루프

스페인

갈리시아 관광청, 사코베오 계획 관리 협회/까미노 데 산티아고(세인트 제임스 웨이)

스위스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림 오브 아프리카/림 오브 아프리카 트레일

【북아메리카】

캐나다

브루스 트레일 보전협회/브루스 트레일

코스타리카

센데로 파시피코 연합/센데로 파시피코

파나마

파나마 도보재단

미국

아메리칸 트레일즈 협회/아메리칸 트레일즈

Hut2Hut.info

PBR 하와이&어소시에이츠 법인

하와이 토지 자연자원국 산림 야생생물과 나-알라-헬레, 트레일&액세스 프로그램

하와이 나-알라-헬레 트레일&액세스 프로그램

【남아메리카】

브라질

세계 자연 보호 기금 브라질

【호주】

호주

비블던 트랙/비블던 트랙

서호주 공원 및 야생 생물국/서호주 내 트레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국

트레일즈WA

※9월 9일 현재

참가 단체 개요

아시아

● 중국

국제 시민 스포츠 연맹 중국본부

● 백로만 습지 - 징장 그린웨이

(2010/2014/2015/2016)

☑ ivv2009@163.com
qiaojin1958@163.com

URL www.chinawalking.net.cn



국제 시민 스포츠 연맹 중국 본부(CVA)/북경 매일 동방 워킹 스포츠 센터는 2002년에 설립되어 2004년에 중국 대표로서 국제 시민 스포츠 연맹(IVV)에 가입했다. CVA는 중국에서 IVV의 사무를 운영한다.

CVA의 4가지 사업: 대형 국제 워킹 대회, 워킹 여행, 트레일 정비, 아웃도어 교육 트레이닝.

공식 웹사이트: www.chinawalking.net.cn

2016년에는 중국 카나스 국제 표준 워킹 여행 트레일을 정비했다.

CVA는 세계 국가 간에 연계하여 워킹 여행과 트레일 정비, 아웃도어 워킹 교육, 트레이닝 등의 분야를 서로 배우고, 도우며 함께 성장한다.

마운틴 저니 차이나

● 중국 국가 등산로

(2014/2015/2016)

☑ liuxmwd@sina.com (Tommy)
286764674@qq.com (Gina)

URL www.nts.cn



국립 트레일 시스템(NTS)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내 14개의 트레일을 기획, 설계했다. 트레일은 저장성, 산둥성, 쓰촨성 등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으며, 전체 길이는 1,600km에 이른다. 국립 트레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노면 시스템
2. 안전 체제 시스템(긴급 구호 시스템 포함)
3. 환경 보호 시스템
4. 서비스 시스템

국립 트레일 시스템은 보다 우수한 트레일을 개발하고 모든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면서 과학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 롱 트레일 협회

(2016)

URL <http://longtrail.jp/>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 롱 트레일 협회는 일본에 롱 트레일을 보급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의 트레일 운영 기관 단체와의 홍보 활동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트레일의 개설 및 정비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8개의 트레일(정비 중인 트레일 포함)이 가입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1,800km를 넘는다.

일반사단법인 전일본 노르딕워크 연맹

● 재팬 노르딕워크 프리미어 리그

(2016)

✉ info@nordic-walk.or.jp

URL <http://www.nordic-walk.or.jp/>



2009년 5월 아시아 최초의 IVV 올림피아드가 일본에서 개최된 것이 설립의 기원. 독자적인 운동 강도별 지도 이론을 확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북유럽 워킹 스타일의 보급 계발'을 슬로건으로 일본 전국에서 활동, 현재 3500명이 넘는 공인 지도원이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메디컬 노르딕워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구세주로서 더욱 활동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JNW 프리미어 리그 56경기를 전개하여 지역 관광 진흥에도 공헌하고 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 워킹 협회

(2016)

✉ jwa@walking.or.jp

URL <http://www.walking.or.jp>



1964년 10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 도쿄에서 북아메리카를 도보로 횡단한 당시 와세다 대학에 다녔던 학생이 동료와 함께 '걷기 걷기 모임'을 탄생시켰다. 협회의 주요 사업 목적은 워킹 운동의 실천 육성 사업, 자연 보호 사상의 보급 사업, 건강 체력 만들기 사업 및 그 일환으로서 워킹 대회 등을 개최, 워킹 운동에 관한 공인 지도원의 양성 자격 인증 사업으로 도도부현 워킹 협회와 제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슈올레 인정 지역협의회, 규슈관광추진기구

● 규슈올레

(2011/2012/2014/2015/2016)

✉ i-yumi@welcomekyushu.jp
qtp@welcomekyushu.jp

URL www.welcomekyushu.jp/kyushuolle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협력하여 일본에 제주올레의 트렌드를 전파했다. 규슈를 가로 지르는 규슈올레를 이용하는 도보 여행자들은 고유의 자연스러운 시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즐길 수 있다. 규슈올레 인정 지역협의회는 규슈올레 각 코스의 브랜드 유지 관리와 자발적인 홍보 및 정보 교환을 위해 2014년 2월에 발족되었다.

가고시마현 자연 보호과

● 아미세계자연유산트레일(가명)(코스 선정 중)

(2016)

✉ amami-worldheritage@pref.kagoshima.lg.jp

가고시마현에서는 시정촌과 연계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보지를 포함한 아미미 군도를 연결하는 롱 트레일 코스를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 아열대 숲과 맹그로브, 백사장, 산호 돌담 마을 등 아미미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지역 주민과 함께 선정해 나갈 것이다.

2016년부터 코스 선정을 시작하고, 코스가 완성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미라이

● 워킹 리조트 돛토리

(2011/2012/2014/2015/2016)

✉ civic@npo-mirai.net

URL <http://npo-mirai.net/public/>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미라이는 '지역과 어린이의 미래를 창조한다' 라는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NPO 단체로 2004년 1월에 설립되었다. 워킹이 주는 효능이 반드시 돛토리현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확신하고 있는 미라이는 워킹 및 건강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워킹 리조트' 는 미라이가 만든 조어이며 일본에서 '워킹 리조트' 를 만들기 위해 SUN-IN 미라이 워크를 메인 이벤트로 하여 돛토리현의 아름다운 장소 및 치유의 장소를 워킹할 수 있는 코스를 전파하고 있다.

산인해안 지오파크 트레일 협의회

● 산인해안 지오파크 트레일

(2016)

✉ info@sanin-geotrail.net

URL <http://sanin-geotrail.net/>

산인해안 지오파크는 아름다운 자연 및 풍부한 문화, 역사, 음식 등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생태 관광 및 스포츠 관광의 무대로 최적의 지역이다. 2015년 7월 산인해안지오파크트레일협의회가 설립되어, 일본 제일로 꼽히는 돛토리 사구와 높은 투명도를 자랑하는 우라도메해안을 중심으로 코스(전체 길이 40.7km)를 설정했다. 산인해안 지오파크를 걷는 롱 트레일 루트는 바다의 형성과정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액티비티 등도 즐길 수 있는 루트이다.

타나베 시 쿠마노 관광 뷰로

● 쿠마노 코도

(2014/2015/2016)

✉ info@tb-kumano.jp

URL www.tb-kumano.jp



쿠마노 코도는 천년 이상 황제부터 귀족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사람이 찾았던 참배길이었다. 순례자가 이용하던 길이 있었는데 이를 오늘날 쿠마노 코도라 부른다. 이 길은 일본 기이(Kii) 반도 산악 전체로 뻗어있으며 쿠마노 코도 참배길은 2004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중 하나이다.

● 네팔

사마르스-네팔 시장 개발 프로그램

●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

(2012/2014/2016)

✉ niki.shrestha@samarth-nepal.com

URL greathimalayatrails.com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은 네팔에서 산과 언덕을 하이킹할 수 있는 트레일 네트워크이다.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은, 서쪽의 홀라와 다추라부터 에베레스트와 안나푸르나의 인기 트레킹 지역 및 돌파와 마칼루 바룬의 외진 트렉을 지나 동쪽의 칸젠준에 이르는 범위로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전체를 아우르는 배너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 한국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올레

(2010/2011/2012/2014/2015/2016)

✉ culture803@dgcn.org

URL www.dgcn.org



대구녹색소비자연대(NGO) 대구올레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팔공산 8개 정규 코스 및 8개 코스를 잇는 연결코스 4개를 포함하여 총 12개 코스를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다. 대구올레길은 계절별로 코스의 특징이 분명하고 난이도가 다양하여 누구나 즐기기에 좋은 길이다. 대표적으로 삼국시대의 고분 214기 이상이 자리하고 있는 불로동 고분군에서 시작하는 팔공산 대구올레 6코스, 유모차와 휠체어도 다닐 수 있으면서 아름다운 숲속이 자랑거리인 팔공산 대구올레 1코스인 '복지장사 가는 길' 과 여름철엔 시원한 그늘과 물소리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 옛 정취가 녹아있는 고즈넉한 사찰을 둘러볼 수 있는 팔공산 대구올레 7코스와 8코스가 있다.



비영리단체 굽이길

● 굽이길

(2014/2015/2016)

✉ jnc1530@hanmail.net



비영리단체 '굽이길' 은 600년 강원도 수부도시 원주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 생태, 환경, 전설 과 설화를 융합하여 강과 힐링, 즐거움과 추억을 위한 도보관광 루트를 조성하고자 2012년 뜻 있는 20여명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280km의 예비코스를 설계 중 이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표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한 상태이 다. '굽이길' 의 이름에서 보듯 강원도 걷는 길의 특성은 1) 산자수려한 자연환경, 2) 여유롭게 즐기는 낭만, 3) 다양한 길과 먹거리, 그리고 추억을 도보여행 관광객에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목표로 조성하고자 한다. 원주시는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고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 배 후도시로 도보관광 활용도가 높고 남한강, 섬강, 치악산 등의 자연적 어우러짐이 우수한 걷는 길 을 가지고 있다.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

● 갈맷길

(2011/2012/2014/2015/2016)

✉ happywalking@hanmail.net

URL www.greenwalking.co.kr



(사)걷고싶은부산은 2009년 10월에 출범하여 부산갈맷길과 걷기 운동의 민관 컨트롤 타워 역 할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길 걷기의 생활화, 걷기운동의 전문화를 이루고 부산을 쾌적한 녹색도시로 바꾸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갈맷길의 소프트웨어 부문을 맡고 있다. 갈맷길 은 '갈매기' 와 '길' 을 결합한 조어로, 갈매기의 형상인 '갈 지(之)' 의 변환 형태로 산, 강, 바다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통합 명칭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2009년 5월24일 선정되었다. 갈맷길은 9개 코스 20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뉜다. 갈맷길의 총연장은 263.8km이며, 9개 코스를 모두 답사하려면 어른 걸음으로 약 86시간이 걸린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 제주올레

(2010/2011/2012/2014/2015/2016)

✉ julie@jejuolle.org

URL www.jejuolle.org
www.worldtrail.org



제주올레는 제주도의 해안을 따라 걷는 아름다운 아일랜드 트레킹 코스이다. 2007년 9월 첫 코스를 개장한 이래, 2016년 8월 현재총 26개코스 425km길이 열려있다. '자연을 생각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길' 의 철학을 담은 제주올레는 '한국관광의 별(2010)', '한국관광 50년을 빛낸관광기네스(2012)', '제1회 인터넷내셔널트레일어워드(2013)', '2014 제주관광대상(2014)', '제5회홍진기창조인상(2014)' 등을수상하며, 건전한 도보여행 문화를 전파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2016)



✉ kwf@walking.kr

URL www.walking.kr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은 국제걷기연맹(IML WA)이 공인하는 국내유일의 한국대표단체이며 세계 154개국 25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가맹단체이다. 원주국제걷기대회, 전국걷기대회, 한국그랜드슬램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에 14개 산하연맹을 두고있으며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 범국민 걷기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 내포문화숲길

(2011/2012/2014/2015/2016)



내포문화숲길

✉ gtrmam@hanmail.net

URL cafe.daum.net/naepotrail
<http://www.naepotrail.org>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은 2010년~2013년에 걸쳐 충청남도의 서북부지역인 내포지역의 4개 시군(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과 중부지방산림청, 수덕사가 힘을 모아 만든 800여리의 내 포문화숲길을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2010년 1월에 창립되었다. 내포지역의 중심 에 우뚝 서있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원효개달음의길, 내포천주교 순례길, 백제부흥운동길, 내포역 사인물-동학길이란 네 가지 테마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포 지역방문을 계기로 내포문화숲길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 내포 가야산에 집중되었던 무분별한 개발 압력으로부터 자연을 지켜내고 우리네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작된 내포 문화숲길은 총거리 320km로 24개 정규 코스와 2개 지선으로 되어 있다.

사단법인 숲길

● 지리산둘레길

(2010/2011/2012/2014/2015/2016)



✉ trail@trail.or.kr

URL www.trail.or.kr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 마을공동체를 꿈꾸고 가꿔가는 곳이다. 2004년 생명평화순례단의 지리 산순례길 제안으로 시작된 ‘지리산둘레길’은 걷기를 통한 회고와 성찰의 문화를 가꿔가고 있다. 3개 도(전라남북도, 경상남도), 5개시군(구례군, 남원시,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지리산둘레 295km 환형 형태의 22개 구간으로 이어져 있다. 사단법인 숲길은 8개의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안내소 포함)를 운영하며, 이곳에서는 지리산둘레길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지리산둘레길’은 ‘민관 협치’의 정신으로 산림청과 지리산권 5개시군의 지원, 이용자들의 협조,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지리산둘레길’에서는 한 바퀴를 이어 걷는 이음단, 걷기 축제, 청소년들의 체험현장, 사회적 약자의 자기 재활 치유캠프, 다양한 순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성찰의 문화를 가꾸어가고 있다.

통영길문화연대

(2011/2012/2014/2015/2016)



통영길문화연대

✉ ajises@hanmail.net

URL cafe.daum.net/tytrekking

통영길문화연대는 역사문화예술도시 통영을 걸어서 만나려는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통영은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곳곳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문화 예술을 이끌고 있는 예향이다. 푸른 다도해를 품은 통영엔 526개의 섬이 있으며, 푸른 바다를 끼고 산새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통영길문화연대는 2011년 9월부터 소규모 걷기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통영 곳곳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 사람들과 함께 걷고자 한다. 통영길문화연대는 행복한 걷기를 실현하기 위해 통영시 보행환경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화재 및 안내판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고 있다. 2014년, 남해의 봄날과 함께 ‘匠人之道(Craftsmen's Way)’를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통영 예술가의 길’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여강길

● 여강길

(2011/2012/2014/2015/2016)



rivertrail3@naver.com

www.rivertrail.net

비영리단체 '여강길'은 남한강의 역사와 문화, 생태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 활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상생의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여강'은 여주를 지나는 남한강을 말한다. 여주사람들은 강을 여강이라는 애칭으로 부를 만큼 강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여강길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이 테마가 되는 길이다. 경기도 여주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이 여주 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러시아

'제니세니' 연해지방 워킹 리그

● '제니세니' 워킹 리그

(2016)



walkerprim@gmail.com

zhenshen-tour.sitecity.ru

구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유일한 조직으로 1990년부터 스포츠·건강을 유지하는 워킹을 새로운 스포츠로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 사회 조직은 스포츠, 건강, 생태, 관광, 익스트림, 하이킹 분야에서 26년간 활동하고 있다. 연해지방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93개의 하이킹 루트 중 33개의 루트가 금상을 수상했다. 15개의 루트는 2001년과 2002년, 2003년, 2005년에 연해지방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았고, 14개의 루트는 2002년, 2003년, 2005년에 러시아 베스트 100 상품에 포함되었다. 또한 52개의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했다.

● 대만

대만 천리 트레일 협회

● 대만 트레일

(2015/2016)



tmitrail2006@hibox.hinet.net

http://www.tmitrail.org.tw

대만 천리 트레일 협회는 우아한 산과 바다의 경치 및 인문 역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역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풀뿌리 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 3000km 이상의 대만 전섬에 순환 트레일을 완성시켰다. '자연 트레일을 손상시키지 않고, 시멘트 트레일을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목표로 트레일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교외의 산 트레일에 대한 포장 상태 조사, 트레일학 등을 보급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도심가에서는 녹색 통행 우선권과 자연의 길을 추진하고 있다. 교외의 산에서는 트레일에 대한 시민 참여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터키

터키 문화의 길 협회

● 터키 문화의 길(리시안 웨이)

(2012/2014/2015/2016)



huseyineryurt@yahoo.com

www.cultureroutesinturkey.com

kateclow@trekkinginturkey.com

www.trekkinginturkey.com

터키 문화의 길 협회는 터키 전역의 실무 단체를 연합해 설치된 비영리단체이다. 이 협회는 사무실 겸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20km에서 600km까지 길이의 17개의 트레일을 시작으로 당일 도보 여행이 가능한 트레일 클러스터 4곳을 관리하고 있다.

● 덴마크

유럽 도보여행자 협회

● 유럽 장거리 트레일 E1-E12

(2012/2014/2015/2016)

✉ President@era-ewv-ferp.com

URL www.era-ewv-ferp.com



유럽 도보여행자 협회는 1969년에 설립되었다. 유럽 3개국에 55개 회원 단체가 있으며 이스라엘과 북아메리카에 각 1개의 가맹단체가 있다. 가장 최근에 가입한 단체로는 유럽의 남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워킹이 중요한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 도보여행자 협회는 유럽의 3백만 명의 회원과 수백만 명의 비회원 여행자를 대표하는 곳이다. 대부분의 회원 단체는 도로표지 정비 및 오두막 제작 등 워킹 촉진을 위한 환경 만들기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해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회원단체 중에는 백 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 그리스

그리스의 길

● 키시라 하이킹

(2014/2015/2016)

✉ info@pathsofgreece.gr

URL www.pathsofgreece.gr



그리스의 길은 그리스 전역 하이킹 트레일의 개발과 국제적인 홍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동단체이다. 이러한 단체는 그리스 안에서도 찾기 힘들다. 2010년 설립된 이후, 그리스 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하이킹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 아일랜드

클레어 갯사이드트랙트

● 루 아발라 팜 루프

(2016)

✉ ehogan@cldc.ie

URL www.clare-getsidetracked.ie



2015년에 개발된 클레어 갯사이드트랙트는 아일랜드의 클레어 시에서 모든 아웃도어 오락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클레어 시의 주요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아웃도어 오락에 관한 정보의 허브가 될 것이다. 트레일에 관한 정보 및 다운로드 가능한 지도 및 가이드로의 링크나 이벤트 등이 기재되어있다. 소셜 미디어 및 길거리의 표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클레어 지방 발전회사의 농업지역 레크리에이션 오피서인 에오인 호간씨가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

● 스페인

갈리시아 관광청, 사코베오 계획 관리 협회

● 까미노 데 산티아고(세인트 제임스 웨이)

(2014/2016) (2011/2012/2016)



✉ francisco.singul@xacobeo.org
xerencia.xacobeo@xunta.es

URL www.turismodegalicia.es
www.xacobeo.es

성 아고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 1200년에 이르는 순례의 역사를 가진 길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부를 횡단하는 코스가 약 900km에 이른다.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 캐나다의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과 함께 '걷는 자의 꿈'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3대 트레일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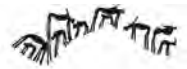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림 오브 아프리카

● 림 오브 아프리카 트레일

(2012/2014/2015/2016)



Rim of Africa
Cape Mountains and Trails Initiative
Cederberg to Outeniqua

✉ info@rimofafrica.org

URL www.rimofafrica.org

림 오브 아프리카는 북부 지역의 명성이 높은 세더버그 야생 보호구부터 동부에 자리한 우테니쿠아 산까지의 케이프 마운틴을 횡단하는 산악지역을 무대로 한 장거리 트레일이다. 림 오브 아프리카, 또는 그 구간을 걷는 것은 남아프리카의 이 지역의 위대함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이기도 하다. 매년 트레일 시즌이면, 표범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거나 9000가지의 각기 다른 식물도 만나 볼 수 있다.

북아메리카

● 캐나다

브루스 트레일 보전협회

● 브루스 트레일

(2010/2011/2012/2014/2015/2016)



✉ jrandle@bruce-trail.org

URL www.bruce-trail.org

스 트레일 보전협회는 자선단체로 이아가라 단층애(Niagara Escarpment)를 따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비롯해 생태통로(conservation corridor) 조성에 힘쓰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책임지는 대중 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브루스 트레일은 캐나다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트레일로, 나이가아라 단층애를 따라 나이 가라에서 토버모리(Tobermory)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메인 트레일 길이가 885km, 사이드 트레일은 400km에 달한다.



● 코스타리카

센데로 파시피코 연합

● 센데로 파시피코

(2016)

✓ nat@mountainsteward.net

URL senderopacifico.net (under construction)



코스타리카의 센데로 파시피코는 몽트베르데 운무림 구역에서 니코야 만의 맹그로브 지대의 트레일 및 오두막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네트워크이다. 트레일은 벨버드 생물 회랑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야생생물서식지, 토지이용구, 농업 지역 등의 지대를 지난다. 오락, 교육, 보호, 커뮤니티 발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 파나마

파나마 도보재단

(2016)

✓ caminandopanama@gmail.com

URL www.caminandopanama.org



파나마 도보재단은 보다 많은 파나마인들에게 워킹의 장점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건강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스페셜 이벤트, 기본적인 트레일 정보 및 지방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로 만들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나마에서의 트레일을 기반으로 한 아웃도어 커뮤니티를 육성한다.

● 미국

아메리칸 트레일즈 협회

● 아메리칸 트레일즈

(2011/2012/2014/2015/2016)

✓ green49@aol.com

URL www.americantrails.org



아메리칸 트레일즈 협회는 미국의 비영리 정부 기구다. 28년 이상을 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과 촉매 역할을 해 왔으며 트레일을 찾는 모든 사람이 그린웨이와 트레일과 연 계된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트레일을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노력했다. AT는 트레일이 모든 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지역사회가 되는 데 있다. 따라서 AT는 트레일과 그린웨이가 사람들에게 일상 속 일부가 되기에 문화적, 경제적 배경뿐 아니라 장애 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미국인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15분 내에 트레일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Hut2Hut.info

(2016)

✓ sdemas@carleton.edu

URL Hut2hut.info



Hut2Hut.info는 장거리 도보 여행자 및 스키·자전거를 이용하는 여행자를 위한 트레일 및 숙박시설을 조사하여 기사 작성 및 정보 발신을 실시하고 있다. 트레일을 이용하는 여행자를 위한 오두막, 호스텔, B&B(bed and breakfast) 플랫폼 위의 텐트, 호텔, 사원 등 다양한 숙박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즐거운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계 트레일에 관한 여행기도 만들고 있다.

PBR 하와이 & 어소시에이츠 법인

(2016)



✉ vshigekuni@pbrhawaii.com

URL www.pbrhawaii.com

PBR 하와이 & 어소시에이츠 법인은 NGO단체가 아닌, 트레일 및 공원설계를 담당하는 민간 토지계획 및 경관설계회사이다. 푸나모쿠 해안 트레일 문화유산 표식, 코올리나 해안공원 개선, 하에나 주립공원 마스터플랜, 카하누 정원 마스터플랜, 쿠키오 안키아린 연못 관리 플랜과 같은 프로젝트를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다.

하와이 토지 자연자원국 산림 야생생물과 나-알라-헬레 트레일&액세스 프로그램

(2016)



✉ Aaron.Lowe@hawaii.gov / Dan.K.Smith@hawaii.gov / Moana.Rowland@hawaii.gov

URL Hawaii Trails.org

Torrie.L.Nohara@hawaii.gov / Clement.Chang@hawaii.gov

‘나-알라-헬레’는 하와이 트레일과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일부 트레일에 일반 출입할 수 없는 것이나 역사가 있는 트레일이 개발 위협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에 부응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되었다. 최근 나-알라-헬레는 점점 트레일의 보전, 공공 상업적 오락 활동에 관한 규제 문제와 새로운 법적 문제에 관여해 나가고 있다.



남아메리카

● 브라질

세계자연보호기금 브라질

(2016)

URL www.wwf.org.br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인재와 기술을 통해 사회운동을 구축하여 보호 구역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설립하고, 이 사업에 새로운 시민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 포괄적인 프로젝트에서는 3,000km에 이르는 장거리 트레일을 통해 브라질 내 4개 주를 연결하여 경관 보호 및 영토 개발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것은 공원 유지 및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동향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공통점을 가진 다른 나라와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본 프로젝트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 모델, 온라인 플랫폼, 일반 이용 지원(특히 장거리 트레일용)을 포함한 혁신적인 트레일 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시켜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호주

비불먼 트랙

● 비불먼 트랙

(2014/2015/2016)



✓ mike@peregrinewa.com.au
linda@bibbulmuntrack.org.au

URL www.bibbulmuntrack.org.au

서호주의 비불먼 트랙은 세계에서 가장 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호주 남서부의 아름답고 야생적인 지역에 1,000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여행자는 근거리 도보 여행을 통해 9개의 시골 마을과 많은 경승지를 관광하며 지방 숙박시설에서 서비스를 즐길 수도 있고, 6~8주에 걸쳐 트랙을 완주할 수도 있다.

비불먼 트랙 재단은 주정부의 공원 야생 생물국을 트랙의 관리, 보존, 마케팅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밀착형 비영리 단체이다.

서호주 공원 및 야생 생물국

● 서호주 내 트레일

(2014/2015/2016)



✓ kerstin.stender@dpaw.wa.gov.au

URL www.capetocapetrack.com.au
www.trailswa.com.au

공원 및 야생 생물국은 서유럽의 크기에 버금가는 260만 km²의 크기로, 광대한 서호주 지역에서 400개 이상의 트레일을 관리하고 있으며 12,500km 이상의 해안선이 있다. 트레일의 일부는 Trails WA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잘 알려진 것은 케이프 투 케이프 트랙으로 르윈 내추럴리스트 국립공원을 케이프 내추럴리스트 등대에서 케이프 르윈 등대까지 종단하듯 뻗어 있는 125km의 트레일이다. 거대한 절벽의 정상에서 보는 경치는 장관을 이루며, 옛 정취 그대로의 모래 사장에 인접한 나리 케이프 마린파크를 볼 수 있다. 비불먼 트랙도 유명한 트레일이다.

트레일 WA

(2016)



✓ linda@bibbulmuntrack.org.au

URL www.trailswa.com.au

트레일 WA는 서호주 내의 트레일 마케팅 및 홍보를 수행하는 독립 단체이다. 트레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트레일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월 9일 현재



주식회사 주부



엔신상사 주식회사



공익재단법인 돗토리 컨벤션뷰로



유한회사 우노 코퍼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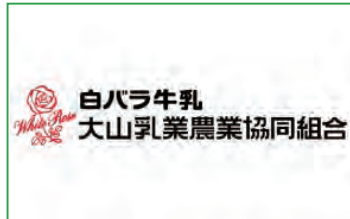
주식회사 산인고토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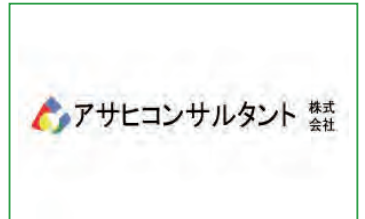
JA 돗토리 중앙 그룹



사회복지법인 게이진카이·사회의료법인 진코카이



다이센 유업 농업협동조합



아사히 컨설턴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기구미



유한회사 교에이구미



다카라 제과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덴코 구라요시 영업소



도호기업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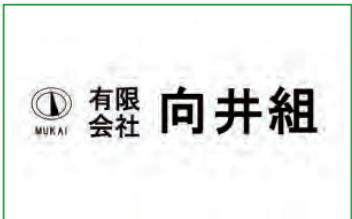
주식회사 돗토리은행



주식회사 호텔 세인트 팔레스 구라요시



미사사 온천 관광협회·미사사 온천 료칸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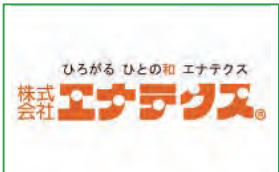
유한회사 무카이구미



주식회사 모리타 제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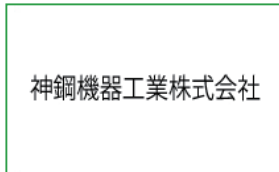
오네큐 오이시토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나테क्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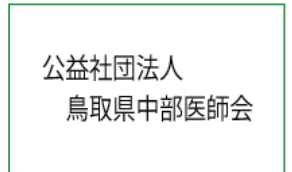
구라요시 신용금고



신코키키 공업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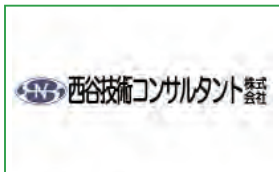
주요쿠전력 주식회사 돗토리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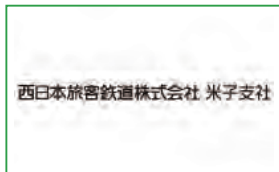
공익사단법인 돗토리현 중부 의사회



돗토리현 중부 삼림조합



니시타니 기술 컨설턴트 주식회사



서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요나고지사



주식회사 메이지제작소